

## 미국자리공으로 놀기 - 물들이기

대부분의 식물은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서 자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식물들도 있다.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옆의 식물에 붙어 살아가는 식물. 용수철 모양의 덩굴손으로 옆 사물에 뻗어 잡아당겨 지탱하는 덩굴식물, 또 줄기를 사물에 꼬아 올라가며 지탱하는 식물. 가장 대표적인 덩굴식물이 담쟁이덩굴이다.

아이들은 낙엽이 말라 떨어진 담쟁이덩굴을 보아도 쉽게 그냥 지나치지만, 벽을 타고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담벼락을 보다보면서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대상 : 유치부 이상

준비물 : 화선지, 신문지, 큰 비닐봉투, 가위, 지점토

계절 및 장소 : 미국자리공 열매가 익어가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야외 혹은 실내.

### 작업순서

1. 자리공 찾아 손톱에 물들이고 논다.
2. 지점토에 물들이며 인디언핑크색의 송편을 만들어본다.
3. 화선지를 접어 여러 겹을 만든다.
4. 비닐봉투에 접은 화선지를 놓고 가운데에 자리공 줄기를 통째로 넣어 손이나 발로 눌러 염색을 한다.
5. 화선지에 염색된 형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산 속에서 포도와 비슷한 열매 찾기

“손대면 툭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라는 노랫말을 생각나게 하는 열매가 있다. 한창 물이 올라 검정물감이 툭하고 터질 것 같은 미국자리공 열매. 9월의 산에 아이들 키만 한 미국자리공이 포도를 연상케 하는 열매를 달고, 땅을 향하고 있다. 껍질이랄 것도 없어 살짝 누르기만 해도 툭 터지며 자주 빛 물감을 토해낸다.

“포도같이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도 돼요?”

산에서 수업을 하며 아카시아 순, 찔레 순, 산딸기를 먹더니 열매만 보면 먹고 싶은가 보다. 하지만 미국자리공은 독성이 있으므로 먹으면 안 된다.

#### 2) 자리공은 어떤 색 염료가 나올까?

“미국자리공 열매에선 어떤 색이 나올까?”

아이들에게 한 알씩 나눠주고 손톱에 바르게 해보면 “어? 이상하다.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자주색이 나오는데요!” 한다. 손톱에 자주색 매니큐어를 바르며 색을 즐긴다.

### 3) 물들여 송편 만들기

하얀 지점토에 자리공 열매를 넣어 꼭꼭 눌러가며 색을 섞는다. 인디언 핑크로 번져가며 물이 든다. 물든 인디언 핑크 반죽 여기저기에 까만 깨가 박힌 듯 점이 생긴다. 자리공의 씨앗이 섞여 나타내는 문양이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즈음 송편 빚는 연습을 해 보는 건 어떨까?

### 4) 미국자리공으로 염색하기

먼저 신문지 한 권을 두껍게 깎는다. 기다란 화선지를 20cm 간격으로 병풍 접기하고, 접은 중간에 자리공 열매 한 줄기를 통째로 넣어 비닐봉투에 넣어 손바닥으로 누른다. 자리공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줄기의 모습은 비슷한데도 색이 번지는 모양은 제각기 다르다.

화선지 가득 나비모양으로 번지기도 하고, 놓은 자리만 물이 들어 활짝 펼친 화선지에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 모양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머느리도 모르는 상황이다.

“화선지에 커다랗게 염색이 되서 시원해요.”

“열매는 검정색인데, 피 색깔로 염색이 되요.”

“우와 정말 피 같아요.”

그래서 가을 숲에서 만나는 탱탱한 자리공 열매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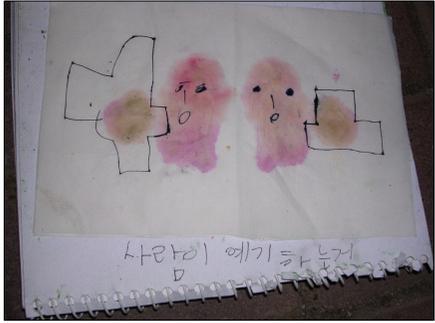
## 주의점

1. 잘 익은 자리공 열매는 워낙에 염료를 많이 담고 있어 몇 겹의 화선지를 뚫고 바닥과 손에 염색될 우려가 있다. 손이야 물로 닦으면 없어지지만, 바닥은 작업 전 꼭 신문지를 깔고, 비닐에 넣어야 안심할 수 있다. 옷에 묻은 것은 빨면 잘 지워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먹음직스러운 느낌에 아이들이 맛을 보고 싶어 하지만 독성이 있으므로 입에 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하나 더!

1. 염색이 되는 가을 식물들 - 가을에 피는 닭의장풀 꽃과 덩굴식물의 열매, 나뭇잎으로 염색을 하며 상상력을 키우자.
2. 화선지 염색하기 - 화선지 위에 꽃잎을 놓고, OHP필름을 덮어 둥근 돌로 콩콩 짤러 염색한다. 필름을 놓지 않고 짤르면 화선지가 찢어진다.
3. 색이 변하는 마술 떡 만들기 - 추석에 미국자리공 열매로 송편을 만들어 보았다. 쌀가루에 자리공 열매의 즙만 넣어 섞어주면 인디언 핑크의 반죽을 얻을 수 있다. 반죽에 송편 속을 넣어 김이 오르는 찜통에 넣어 20분 정도 쪄 냈다. 핑크빛 송편을 기대하면서 찜통을 열었다. 그런데 “누가 마술을 부렸나?” 핑크빛 송편이 노란색 송편으로 변해 있었다. 실망을 할까? 더 좋아졌다고 할까? 엄마와 함께 마술 떡을 만들어보면 좋을 듯하다. 미국자리공 염료는 바로 먹으면 안 되지만, 지난 가을 송편을 만들어 임상실험을 한 결과 쪄 낸 것은 안심해도 된다.

재료의 특성 - 화선지는 흡수력이 좋아 염색하기에 적합하다.



# 풀 가발 만들기

부모 세대는 칼로 연필을 깎아 썼다. 어떤 아이들은 미끈하게 깎지만 어떤 아이들은 짧고 투박하게 깎았다. 연필심을 가늘게 깎아 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뭉툭하게 굵은 채로 쓰는 아이들도 있다. 연필 하나 깎는 데도 아이들이 저마다 달랐다.

그런데 요즘엔 누구나 연필깎이로 깎는다. 연필깎이 기계는 순식간에 모두 똑같은 모습의 매끄럽고 가느다란 연필을 토해낸다. 흔하고 차이가 없는 연필은 잃어버려도 아쉽지 않고, 부러져도 쉽게 다시 깎으면 그만이다. 운동화도 끈이 있으면 엄마가 묶어주고, 찝찝이가 붙어 있어 너무 편리하다.

하지만 편리한 게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구석이 있다. 칼을 제대로 쓸 줄 모르며, 끈을 묶어 매듭질 줄도 모른다. 당연히 머리도 혼자 힘으로 묶지 못한다.

넘치도록 많은 인공적인 놀이도구에 문힌 요즘 아이들은 산에 오를 때도 장난감을 들고 오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풀과, 나무쫓정리로 던지고, 돌리고, 칼싸움하며 놀다 보면 주머니 속에 넣어온 장난감을 아예 잊어먹곤 한다.

산길을 오르며 머리카락같이 길게 늘어진 풀을 보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무심결에 풀에 손이 간다. 만져보고 싶고, 따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길게 자란 풀로 아이들과 미용사 놀이를 할 수 있다. 손으로 뜯고 가위로 자르기도 하며 풀을 가지고 신나게 놀 수 있다. 풀로 멋진 설치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자.



대상 : 유치원생 이상

준비물 : 스케치북, 파스텔, 정착액(픽서티브), 가위, 마른 들풀

계절 및 장소 : 봄, 여름, 가을, 겨울. 풀이 있는 실외

## 작업순서

1. 풀을 뜯기도 하고, 자르며 논다.
2. 스케치북에 파스텔로 옆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색을 칠한다.
3. 파스텔 그림에 정착액을 뿌린다.
4. 얼굴 그림을 풀 아래쪽에 놓는다.
5. 얼굴에 어울리게 풀을 뜯고, 자르고 논다.

## 이렇게 해 보세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옥수수수염으로 인형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자. 산을 오르다 보면 길옆에 길게 자란 풀이 있다. 저 풀은 무엇을 닮았을까? 할아버지 수염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 같기도 하다. 봄이면 초록빛에 윤기가 흐르고, 가을이면 갈색으로 변해 근사한 염색 머리가 되겠다 싶다.

여자아이들만 머리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자 아이들도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어른들이 말려서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 머리는 잘못되면 꽤 오랫동안 창피하지만, 풀은 부담이 없다. 며칠이면 힘껏 자라날 테니까. 이 활동은 풀을 가지고 스케치북에 그려놓은 평면적인 얼굴에 머리카락을 입체적으로 붙여서 재미있고 사실감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 1) 머리 뜯기

풀로 머리 뜯기를 한다. 단순한 동작인데도 많은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 할 것이다. 그래도 아이들 스스로 풀을 한 손에 한 묶음씩 쥐고 번갈아 가며 꼬아보게 한다. 실력이 되면 세 묶음으로 꼬아 새끼줄처럼 만들어 보게

한다.

## 2) 가위로 자르기

가끔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안 보는 틈을 타서 가위로 자기 머리를 싹둑 잘라 혼쫌이 나는 경우가 있다. 가위를 써보고 싶기도 하고, 앞머리를 자르면 어찌 될까 궁금해 하기도 해서 그런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이리저리 바꿔보고 싶은데, 쉽게 자르기엔 머뭇거리진다. 이럴 때 풀을 자기 머리카락이라 생각하면서 잘라보자. 미용사가 된 기분으로 풀을 싹둑싹둑 잘라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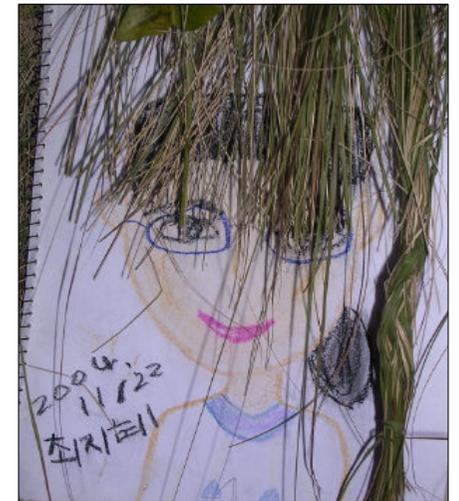
## 3) 머리카락과 얼굴과의 만남

### (1) 풀을 자르지 않고 하는 활동

풀은 실컷 가지고 놀았는데, 얼굴이 없어 사람 같지 않다. 스케치북에 얼굴을 그리고 파스텔로 얼굴색을 찾아 밟그레하게 칠한다. 얼굴 그림을 풀 속에 놓고 양쪽으로 땅아 갈래머리도 만들고, 짧게 자르기도 하고, 긴 장발이 좋다며 덤수룩하게 내린다.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머리모양이 아닐까?

### (2) 풀을 잘라서 하는 활동

스케치북에 그린 얼굴 그림에 풀을 잘라 붙여본다. 미리 땅아놓은 풀을 가위로 잘라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풀로 그냥 잘라서 생머리처럼 붙일 수도 있다. 풀은 뿌리만 뽑지 않으면 잘라도 계속 잘 자라기 때문에 자연훼손에 대한 부담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잎이 넓고 납작한 풀은 손을 베일 수 있으므로 풀을 잘 선택해야 한다.



## 나의 씨앗에서 무엇이 나올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일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평범한 흙 한 덩어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씨앗이 되고 이젠 그 씨앗에서 작은 세상이 열리고 있다.

<씨앗에서 무엇이 나올까?>로 키워낸 식물은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소망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꾸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대상 :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준비물 : 수채화물감, 도화지, 붓, 팔레트, 물통

계절 및 장소 : 사계절 모두 가능, 실내

### 작업순서

1. 찰흙으로 만든 씨앗을 앞에 놓는다.
2.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씨앗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지 아이들이 궁금하도록 만든다.
3. 아이들에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면 눈을 감고 씨앗을 상상하도록 한다.
4. 교사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아가며 적당한 쉼을 주며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상으로 본 것을 스케치 없이 물감을 사용하여 붓으로 바로 그린다.
6.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사전 작업 - 씨앗 만들기

<씨앗 만들기>를 하지 않고 <나의 씨앗에서는 무엇이 나올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씨앗 만들기>를 한 후에 해야 훨씬 효과가 있다.

#### 2) 내가 만든 씨앗과 함께 상상하기

지난 시간에 씨앗 만들기 한 것을 아이들의 앞에 놓도록 한다.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씨앗도 모두 다르게 생겼네요. 내 앞에 있는 씨앗 속엔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하는 생명체가 들어있어요. 이 씨앗에서 과연 어떤 생명체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눈을 감으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눈을 감고 너희들이

만든 씨앗을 떠올려보세요.”

잠시 쉬을 주고 “씨앗이 보이나요?” 하고 묻는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상상을 할 준비가 되면 안내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씨앗은 캄캄한 땅 속에 있어요. 아직은 चु근요.” (잠시 쉬을 준다.)

“햇볕이 서서히 땅을 데우고 있어요. 점점 따뜻해져요.” (잠시 쉬을 준다.)

“땅 속에 있는 씨앗은 햇볕이 자기를 부르는지를 알아요. 이제 나가야 되겠어요. 몸을 조금 움직여요.” (잠시 쉬을 준다.)

“껍질을 조금 벌리고 아주 조금 나왔어요.....좀더 나왔어요.” (잠시 쉬을 준다.)

“자, 이제 땅 위로 올라왔어요. 햇볕이 반기듯이 새싹의 볼을 간질이는군요.”

(잠시 쉬을 준다.)

“새싹은 이제 쭉쭉 자라요.” (잠시 쉬을 준다.)

“계속 자라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씨앗에서 탄생한 것들을 보셨죠? 도화지 위에 여러분이 본 것을 그려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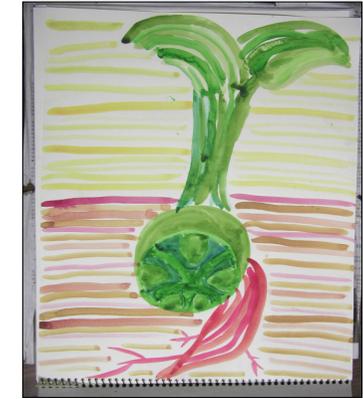
### 3) 물감으로 그리기

사고가 아닌 직관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하여 연필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물감을 이용하여 붓으로 바로 그리도록 한다.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럴까? 저렇게 그럴까?’ 하는 사고를 하게 되고, 사고를 하게 되면 상상으로 본 이미지가 달아남은 물론 아이들의 내면이 그림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키워내는 식물은 바로 아이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려움 없이 자신의 식물을 키워낸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 등장하기도 하고 귀와 눈과 입이 있던 씨앗에서는 귀여운 동물의 꽃이 피어난다. 아이들은 자신이 키워낸 식물들을 아주 좋아하고 뿌듯해한다.

하나 더!

1. 도화지에 씨앗을 그리게 하고 그 씨앗에서 무엇이 나올지 키워보라고 해도 된다. 이때도 스케치 없이 물감이나 먹물 묻힌 붓으로 바로 그리도록 해야 한다.
2. 찰흙으로 씨앗을 만든 다음 씨앗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찰흙으로 만들어보라고 해도 된다. 고무찰흙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베란다나 유리창문에 붙여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거미줄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면 손님이 온다는 어른들 말씀이 있었다. 거미는 그만큼 사람에게 이롭고 반가운 곤충이었던 것 같다. 요즘같이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거미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가족같이 가깝게 살던 거미네 집은 이제 집안에서는 보기 드물다. 그럼 산으로 올라가 찾아 볼까?

8월 장마가 끝나면서 숲에는 유난히 거미줄이 많이 보인다. 그동안 비와 바람에 시달렸던 거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절기이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거미집을 들여다보면 자연의 그 어떤 것보다 치밀하고 계획된 듯한 구조물을 볼 수 있다. 숲을 다니며 여러 모양의 거미줄을 찾아 관찰하면서 거미줄의 궁금증을 밝혀보자. 아예 우리가 인간거미가 되어 거미줄을 한 번 짜볼까?



대상 :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

준비물 : 철사로 된 옷걸이, 가는 꽃철사, 가위, 고무찰흙, 스프레이, 스케치북, 연필, 실

계절 및 장소 : 거미줄이 많은 7월~9월 야외

## 작업순서

1. 거미줄을 찾아 관찰하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얘기 나누다.
2. 거미줄을 보며 스케치한다.
3. 옷걸이로 벌려 틀을 만들고 꽃철사로 대각선을 여러 개 겹쳐 만든다. (시작과 끝은 옷걸이에 철사를 감아 고정을 하는 것이 편하다.)
4. 대각선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철사를 엮어 동심을 만들어간다.
5. 고무찰흙으로 거미와 곤충을 만들어 단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마술 놀이

거미줄이 어디에 있을까? 나뭇가지 사이에 서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보자. 그러면 마술을 하듯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모습을 드러낸다. 스프레이를 들고 산으로 가서 거미줄이 있는 곳 근처에 물을 뿌린다. 뽕얀 물안개가 되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거미줄에 닿아 대롱대롱 맺힌다. 아이들은 “우와, 거미줄이 보여요.” 빛 때문에 보이지 않던 숨겨진 구조물이 나타남을 신기해한다. 거미줄 위에 작은 물방울, 큰 물방울들이 바람에 그네를 탄다.

### 2) 거미가 되어보자.

아이들에게 거미줄을 관찰하고 스케치북에 그려보라고 하면 저학년으로 갈수록 가로 세로가 교차된 모습의 거미줄을 그린다. 실제 거미줄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거미줄은 삼각형 대각선에 동심원을 그리면서 모여지는 평면도

있고, 여러 개의 평면이 모여서 이중 삼중의 구조물이 뒤엉켜있는 모양도 있다. 진짜 거미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거미가 되어 보아야 한다. 도대체 이 거미줄을 거미는 어떻게 만들까? 어디서부터 줄을 걸고 거미줄 만들기를 시작할까? 긴 실 끝에 고무찰흙을 달아 거미라 하며 아이들에게 흔들어 준다. 대각선을 먼저 만들었을까? 동그라미를 먼저 만들었을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먼저 줄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다. 지지해주는 힘이 없는 동그라미는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흐트러진다.

### 3) 옷걸이로 거미줄을 만들어 보자

거미줄을 보면 어떤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철사로 된 옷걸이를 동그랗게 또는 사각형으로 벌려 틀을 만들어 놓고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가며 대각선을 만든다. 거미가 된 듯 실을 뿜으며 줄을 엮어 동심원을 만든다. 스케치 했을 때는 닮지 않았던 거미줄이 철사로 엮어가는 모습에서는 많이 닮아 있다.

### 4) 거미줄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 거미가 살고 있다. 그리고 거미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도 달려 있겠지. 이제 만들어진 옷걸이 거미줄에 고무찰흙으로 거미와 잡힌 곤충들을 만들어 달아본다. 알록달록한 곤충들이 달려서 더 멋진 거미줄이 될 수 있다. 또 거미가 거미줄로 감아놓은 곤충도 한 번 만들어 볼까?

## 하나 더!

옷걸이로 틀을 만들어 놓고 같은 방향으로 철사를 나란히 엮어 풀, 깃, 털, 가는 나뭇가지 등 자연물을 함께 엮어줘도 재미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주의점** - 스케치한 거미줄이 닮지 않았다고 해서 무어라 말할 필요는 없다.

아이가 느낀 거미줄의 모양이니까. 관찰한 후에 관찰된 모양을 그리 는 것은 저학년일수록 더 어려워한다. 그럴 땐 거미줄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설명을 해주면 좋다. 거미줄의 동심원을 만들며 갈 때 대각선 줄을 한번씩 엮고 가야 동심원이 움직이지 않아 모양을 유지 할 수 있다.

**재료의 특성** - 옷걸이는 아이들이 휘기에 힘이 들지 않아서 거미줄 만들 때

틀로 쓰기에 정말 훌륭한 재료이다. 가는 꽃 철사도 실과 같이 감을 수도 있고, 변형이 쉽다. 고무찰흙은 색이 많아 자연 물의 색과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아무것에나 잘 붙는다.



거미사진



# 낙엽 연

여름에 아이들과 나뭇잎 배를 만들어 놀았던 것을 다시 떠올렸다. 어떤 나뭇잎은 빗물에 잘 떼지만 어떤 잎은 잘 뜨지 않았다. 그럼 바람에 날리는 낙엽은 어떨까? 가지에서 떨어져 땅으로만 떨어지는 낙엽을 하늘로 날려 보낼 수는 없을까? 어떤 낙엽이 연이 될 수 있을까? 낙엽으로 연을 날릴 수 있다면 참 신나는 경험이 될 것이다.

바람을 가르며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타는 아이들.

연이 뜨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 뜬다.



**대상 :** 7세 이상(유아와 초등1년생은 묶는 작업을 도와주어야 함)

**준비물 :** 잘 마른 낙엽, 실(가벼우며 질긴 것), 나뭇가지, 여러 가지 색의 습자지, 풀, 가위

**계절 및 장소 :** 가을, 낙엽이 잘 말라있고 바람 부는 야외

## 작업순서

1. ‘낙엽이 바람에 연처럼 뜰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도록 접근한다.
2. 바람에 잘 날릴 것 같은 낙엽 2개 내지 3개와 나무토막을 찾아온다. 실 한 쪽에는 낙엽의 잎자루를 묶고, 나머지 한 쪽에는 나무토막을 묶어 바람에 낙엽 연이 잘 뜨는지 날려본다.
3. 연이 잘 뜨지 않았다면 바람에 잘 날릴 것 같은 낙엽을 다시 찾아와서 낙엽 연을 만들어 날린다.
4. 한참을 날리고 논 후에 습자지를 이용해서 연의 꼬리를 만들어서 날린다. 습자지가 붙은 양과 위치에 따라서 연이 잘 날기도 하고 날지 않기도 한다. 연이 잘 날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 연구하도록 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낙엽 고르기

아이들에게 바람에 잘 뜰 것 같은 낙엽 두세 개와 연을 묶을 나무토막을 골라 오도록 해보자.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통통거리는 공처럼 동네 이곳저곳을 뛰어다닌다. 적당한 낙엽을 찾기 위해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는 비탈진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작은 관목들이 있는 곳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도 찾아가기도 한다.

## 2) 낙엽 연 만들기

가져온 낙엽에서 하나를 골라 실 한쪽에 낙엽의 잎자루를 묶고 나머지 한쪽에 나무토막을 묶는다. 그리고 낙엽이 연처럼 잘 나는지 날려보도록 한다.

버짐나뭇잎과 같은 바람 닿는 면적이 넓은 나뭇잎은 제법 잘 난다. 너무 작은 나뭇잎이나 모양이 뒤틀어진 채 마른 나뭇잎은 잘 날지 않는다. 한번 날려본 아이들은 '이제 알았다'는 듯이 잘 날 것 같은 낙엽을 찾아 동네를 또 한 차례 순례를 한다.

한참을 낙엽 연과 놀다가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질 때쯤, 낙엽 연을 좀 더 멋지게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아주 가벼운 종이인 여러 가지 색의 습자지를 나누어주고 가오리연처럼 꼬리를 달아보자고 한다. 낙엽에 얇은 종이로 치장을 하자 아이들의 개성대로 다양한 연이 탄생한다.

## 3) 날아라, 낙엽 연!

어떤 연은 습자지를 붙이기 전보다 잘 날지 못하는 연도 있고, 어떤 연은 꼬리를 달아서 더 멋진 모습으로 나는 연도 있다. 낙엽으로만 연을 만들어 날릴 때보다 여러 가지 색의 습자지로 치장한 연을 날리자 꼬리가 바람에 너울거리는 것이 재미를 더해준다.

아주 커다란 버짐나뭇잎과 목련나뭇잎을 실에 묶고 시종일관 웃음소리를 뿜어내며 낙엽 연을 높이 들고 바람을 가르며 뛰고 또 뛰는 아이들. 마치 그 모습은 아이들이 바람에 뜨는 것 같다. 아이들은 연을 나뭇가지에 걸쳐놓고 연이 바람을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좋아하기도 하고 팔을 허공에 뻗친 채 서서 연을 바람에 날리기도 한다.



어? 정말 나네?



얇은 습자지를 붙인 낙엽연



날아라. 높이 날아라.



나뭇가지에 낙엽 연을 걸어놓고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가을 담기

노랑, 주황, 주홍, 빨강으로 물든 잎에 빛이 닿으면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어느 곳에 시선을 두어도 그곳이 아름다운 자연이라면 소중한 그림처럼 마음에 자리 잡을 것이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아이들은 예쁘게 물든 낙엽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줍지 않겠는가? 가을담기는 아이들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들이 함께 만든 공동작품은 가족들 간의 적절한 협력과 역할나누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 :** 유아 이상 / 유아와 초등학교 1, 2학년은 부모와 함께  
**준비물 :** 종이 망원경, A3 크기의 패널, 핸디코트, 핸디코트를 평평하게 바를 수 있는 도구, 옹기토, 붉은 색의 열매, 여러 가지 자연물

**계절 및 장소 :** 가을,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썼을 때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

## 작업순서

1.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장소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원을 그리고 선다.
2. 노래를 부르며 손을 잡고 돌다가 교사가 '멈춰' 하면 원의 바깥을 보며 멈추고 종이망원경으로 가을을 본다(추천곡 : '둥글게, 둥글게'). 진행자는 아이들이 보았던 장소를 또 보지 않도록 적당할 때 노래를 멈춘다. 약 3번 정도 하면 적당하다.
3. 가을담기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담아가고 싶은 가을을 한 움큼씩 가져오도록 한다. 예를 들면 낙엽, 나무껍질, 나뭇가지, 열매, 돌 등
4. A3 패널 뒷면에 핸디코트를 1cm 두께로 바르고 자유롭게 가져온 자연물을 붙여 가을을 표현한다.
5. 가족들이 함께 작업한 것을 발표하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종이 망원경으로 가을보기  
가족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선다. 노래를 부르며 손을 잡고 돈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랄라랄라 춤추자.'

신나게 춤을 추며 원을 그리며 돌다가 진행자가 ‘멈춰!’ 하면 몸을 원의 바깥으로 향하고 서서 종이망원경으로 가을을 본다. 어느 정도 본 후에는 다시 노래를 부르며 원을 돌다가 ‘멈춰!’하면 멈춰 서서 종이망원경으로 가을의 모습을 본다. 약 3번 정도 하면 적당하다. 노래를 멈출 때는 보았던 장소를 또 보지 않도록 적당한 때 노래를 멈춘다.

종이망원경으로 보면 적은 면적만이 시야에 들어오므로 가을의 단풍을 더욱 잘 느끼고 볼 수 있다.

## 2) 가을담기

가을의 여러 장면을 보고 난 후에는 가을을 담아보기로 한다.

“여러분이 보신 가을을 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양손에 가을을 한 움큼 가지고 오십시오. 나뭇가지도 좋고 도토리, 솔방울, 나무껍질, 낙엽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담아가고 싶은 가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노랑, 주황, 빨강, 자주로 예쁘게 물든 나뭇잎들을 줍는 고사리 손의 아이들, 낙엽을 줍다가 무언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솔방울과 나뭇가지를 가슴 가득 앓고 오는 아빠. 죽은 나무에 있는 버섯을 발견하곤 신기한 듯 보고 있는 아이들. 가족과 함께 하는 가을담기는 따뜻함이 흐른다.

가족들이 함께 모아온 가을 재료들을 A3 판넬 뒷면에 핸디코트를 1Cm두께로 발라 붙여준다. 가을 풍경, 동물의 모양, 무엇이든 좋다. 가을을 멋지게 담을 수 있도록 해보자.

자연물이 갖고 있는 형상이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이 작업은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다. 씨앗이 빠져나가고 남은 솔방울껍질을 하나하나 따서 무언가를 만드는 아이. 나무껍질을 이용해서 용을 만드는 아이. 작은 나뭇잎과 큰 나뭇잎을 이용해서 다람쥐를 멋지게 만드는 아이. 남이섬의 가을 풍경을 작은 판넬 안으로 가져온 듯이 표현한 아이.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얼굴에도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물이 모자라서 다시 가서 주워오는 아빠의 노력. 가족이 함께 만드는 가을담기는 즐겁다.

## 3) 작품 감상하기와 느낌 나누기

가족들이 함께 작업한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본다. 작품의 내용을 아이들이 발표하도록 하고 함께 서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주의점

1. 참가인원이 많을 경우 가을 소품 줍기를 할 때 시간을 정해주면 좋다.
2. 핸디코트를 바르는 작업은 아이들이 어릴 경우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낙엽이나 나무, 솔방울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너무 얇게 바르지 않도록 한다.
3. 핸디코트를 너무 오랫동안 바르면 걸면이 굳어서 나뭇잎, 솔방울 등이 잘 붙질 않는다.
4. 가족이 함께하는 작업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고 간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는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의견에 이끌려 가게 된다. 아이가 먼저 상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자.



종이망원경으로 가을보기



가을 줍기



핸디코트 바르기



자연물로 가을표현하기



# 담쟁이덩굴

대부분의 식물은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서 자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식물들도 있다.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옆의 식물에 붙어 살아가는 식물. 용수철 모양의 덩굴손으로 옆 사물에 뻗어 잡아당겨 지탱하는 덩굴식물, 또 줄기를 사물에 꼬아 올라가며 지탱하는 식물. 가장 대표적인 덩굴식물이 담쟁이덩굴이다.

아이들은 낙엽이 말라 떨어진 담쟁이덩굴을 보아도 쉽게 그냥 지나치지만, 벽을 타고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담벼락을 보다보면서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준비물 : 고무찰흙, 투명아크릴판, 단풍든 잎, 루페

계절 및 장소 : 담쟁이덩굴이 떨어진 후 11월초, 담쟁이덩굴 관찰 실외, 관찰 후 실내

## 작업순서

1. 담쟁이덩굴을 보며 관찰을 한다.
2. 고무찰흙을 길게 만들어 덩굴을 만든다.
3. 아크릴판에 만든 덩굴을 예쁘게 올린다.
4. 빨판도 만들어 붙인다.
5. 단풍든 잎을 주워 줄기에 붙인다(자유표현).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담쟁이덩굴 관찰하기

“애들아 벽을 기어오르는 개구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빨판이 발끝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문어나 낙지가 어항의 벽에 붙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역시 다리에 있는 빨판 때문이겠지요.”

“그럼 저기 벽에 있는 담쟁이덩굴은 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걸까?”

“글쎄요? 개구리처럼 빨판이 있을까요?”

가까이 다가가 루페를 대며 관찰을 한다.

먼저 발견한 아이가 “다섯 개의 빨판 모양이 가지 끝에 있어요.”한다.

“정말 그것이 덩굴을 벽에 붙어있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굵은 가지는 벽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곳만 벽에 꼭 박혀있어요.”  
 한 아이가 손톱으로 그것을 긁어서 떼어내고, 루페로 그 자리를 본다.  
 “그곳이 있던 자리에 흠이 파져있어요.”  
 “벽을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와, 힘이 무지 센가 보구나.”  
 “풀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나와서 벽을 녹여 파고든 것 같아요.”  
 모래알만한 작은 점 다섯 개가 한 쌍으로 붙어있는 가지가 군데군데에서 덩굴을  
 지탱해 주고 있었다.

## 2) 우리가 만든 담쟁이덩굴

고무찰흙으로 가지를 길게 만들어 아크릴판을 타고 올라가게 표현한다. 가는 줄  
 기를 만들어 곁가지로 붙이고 동그란 빨판을 만들어 붙여 덩굴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단풍든 덩굴 잎을 주위 줄기 중간에 붙이기도 한다. 색이  
 고은 담쟁이덩굴이 태어났다.

**주의점** - 고무찰흙은 같은 색이 조금씩 있어서 나뭇가지 색을 만들 때 고민을  
 한다.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해도 된다고 말해준다.

**재료의 특성** - 투명아크릴판에 고무찰흙으로 덩굴을 만들어 붙이고 덩굴사이  
 에 놓으면 벽이 보여 재미나고, 똑바로 세워놓아도 떨어지지  
 않아 진짜 벽을 타고 올라간 느낌을 준다.

## 하나 더!

1. 고무찰흙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베란다나 유리창문에 붙여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2. 수업을 하는 두 가지 방법  
 관찰 수업에서 관찰을 한 후 표현하는 것과 주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표현하  
 게 하고 나중에 관찰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수업을 했을 때 표현되  
 는 작품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보았다.
  - ① 담쟁이덩굴을 관찰하며 개구리와 낙지의 빨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팀은  
 빨판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냥 벽을 기어오르는 담쟁이덩굴이야  
 기를 하면서 관찰 없이 수업을 한 팀은 빨판은 표현되지 않았다.
  - ② 시작은 덩굴로 했지만 꽃이 있으면 더 좋겠다며 꽃을 만들어 붙여 담쟁이  
 덩굴이라기보다는 어느 다른 꽃나무의 인상이 강하게 느껴졌다. 주제의 특  
 징이 나타나게 표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니만큼 결과물은 둘 다 만족하  
 게 나왔다.



## 자연을 담는 그릇

숲에서 “툑” 소리가 난다. 송이가 벌어진 밤송이에서 밤알이 떨어졌다. 횡재다. 밤나무 밑에 가면 밤송이가 떨어져 있기도 하다. 두 발로 문지르면 벌어진 사이로 밤이 나란히 보인다. 한번에 2~3개라니 대단한 횡재다. 도토리는 영글기가 무섭게 다람쥐나 청솔모가 가져갔는지 작은 것들만 있다. 아이들은 그저 작은 것들을 모으기 좋아한다. 어디다 사용할 런지는 나중 문제다. 가시가 달린 찔레나무가 작고 귀여운 빨간 열매를 달고 있다. 팔배나무 밑에는 직박구리새가 먹다 떨어뜨린 붉은 열매가 간혹 보인다. 팔배나무 열매는 새콤한 게 제법 먹을 만하다. 덩굴식물도 열매를 달고 있다.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구슬 같은 붉은 열매 여럿을 달고 있는 청미래 덩굴이다. 깊어가는 산에는 가을꽃들이 만발해있고, 여름에 꽃이 피었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있다. 높고 푸른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고, 가을 풀들도 마지막 꽃을 매달고 있다. 떨어져 뒹굴고 있는 밤송이와 도토리는 아이들의 놀잇감으로 그만이다. 가을 열매를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함께 알아보자. 숲에 있는 나무의 열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연물을 조화롭게 꽂아 본다면 더 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풍성한 가을 놀잇감들과 찻흙으로 가을을 담아보자.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교

준비물 : 찻흙2개, 찻흙 판, 가위, 가을열매

계절 및 장소 : 가을, 야외나 실내 모두 가능.

### 작업순서

1. 가을 열매와 식물들을 채취한다.
2. 찻흙을 3등분 한다. 하나를 펴서 바닥을 만든다.
3. 지렁이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 바닥에 붙여 쌓아 올린다.
4. 쌓아 올린 찻흙을 오므리든, 펼치든 해서 그릇을 만든다.
5. 채집한 열매와 꽃, 들풀을 꽂는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열매 모으기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새들이다. 새들은 무엇 먹고 살까? 물론 벌레를 먹고 산다. 그런데 벌레가 없는 겨울에는 무엇 먹고 살까? 나무속에 숨어있는 벌레와 풀씨,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사람들이 나무 열매가 예쁘다고 다 잘라가면 새들은 먹을 것이 없어진다. 아이들에게 새의 먹이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해준다. 도토리나 밤은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우면 된다. 또 숲 속에 있는 열매는 숲 속에 사는 동물들이 겨울을 지내며 먹어야 하는 식량이므로 조금씩 채취하게 한다. 그리고 가시가 있는 덩굴이나 나무는 찔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 2) 찻흙으로 병이나 접시 만들기

수집해온 열매를 담은 병이나 접시를 만들어 보자.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들까? 먼저 찻흙을 세 등분해서 한 덩이를 펴서 바닥을 만들고 또 한 덩이를 지렁이를 만들어 쌓아올리면 꽃병 모양이 만들어지고, 쌓아올린 흙을 벌여지게 하면 접시

모양의 그릇이 된다. 접시 모양은 열매를 쫓기가 어려우므로 접시 중앙에 나머지 찰흙 한 덩이를 붙여놓고 그곳에 쫓는다.

꼭 그릇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만들고 싶으면 자동차를 만들고, 바위를 만들고 싶으면 바위를 만들어도 된다. 자동차가 완성되었다면 어떤 열매나 자연물로 장식해서 자동차를 더 근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숲 속에 사는 동물을 만들어보고, 그 동물이 살 수 있는 나무 위나 풀 속에 놓아 보게 한다.

### 3) 만든 작품을 어떻게 할까?

찰흙으로 완성한 작품을 그냥 말리지 말고, 채집한 열매와 꽃, 들풀을 쫓는다. 그러면 하나의 멋진 설치미술 작품이 된다. 완성한 작품은 가져가도 되지만, 자연에 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이 어울리는 장소에 놓아두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주의점** - 빨간 열매를 발견하고 따려는 급한 마음에 가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찢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덩굴식물로 리스 만들기

옛날 먹을 것이 모자라던 시절 칙뿌리는 식량 대용이기도 했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간식거리이기도 했다. 칙뿌리에 있는 녹말성분이 속을 든든하게 해 준 것이다. 칙껍질을 벗긴 속살은 누르고 물기가 돌며 먹음직스럽기까지 하다. 칙을 입안에 넣으면 쓴맛이 먼저 느껴지지만 참을성을 가지고 조금 더 씹으면 그 맛이 달작지근하다.

산을 오르는 입구에는 어느 곳이든 칙이 무성하다. 너울대며 바람에 팔랑거리는 칙의 앞사귀는 나비가 흔들리는 모양새와도 같다. 칙으로 봐서는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지만, 칙은 나무를 타고 오르기 때문에 나무 입장에서 보면 애물단지다. 나무의 광합성을 막아 결국엔 말라죽게까지도 한다. 칙의 덩굴은 잘 휘어지는 성질이 있다. 덩굴식물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무성한 칙을 잘라주어 나무를 보호하면서 칙덩굴을 이용해 장식품을 만들어 보자. 또 주변에 있는 가을열매들을 주워 예쁜 나만의 장식품을 만들 수도 있다.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준비물 :** 덩굴식물(칙, 마), 주목 잎사귀, 여러 가지 가을열매, 리본, 가위, 본드, 꽃철사

**계절 및 장소 :** 덩굴 식물이 말라가는 가을, 실내와 실외 모두 가능.

## 작업순서

1. 내가 아는 덩굴 식물 이름대기 놀이를 한다.
2. 칙덩굴의 특징을 말해주고 같이 찾는다.
3. 칙덩굴을 관찰하고, 적당한 굵기의 덩굴을 골라 잎을 제거한다.
4. 칙덩굴을 여러 번 돌려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꽃철사로 고정시킨다.
5. 가을열매를 모아 덩굴에 본드로 붙여 완성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식물 이름대기 놀이

우리가 아는 덩굴식물은 몇 가지나 될까?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식물 이름대기 놀이를 해 보자. “담쟁이덩굴, 칙, 환삼덩굴, 박주가리, 청미래 덩굴……” 등 여러 종류를 알고 있다. 아이들이 말한 식물들을 찾으러 다닌다. 여러 가지 식물을 보면서 잎의 생긴 모양을 보고, 만져보며 질감도 느껴본다. 그러면서 잎이 세 개가 모여 나는 식물을 찾는다.

### 2) 칙, 맛보고 관찰하기

아이들에게 칙뿌리를 먹어보게 하고 어떤 맛이냐고 물어보자.

“쓰면서 약간 달아요.”

“물 같은 게 나오고, 흙 맛이 나요.”

“칙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목이 마를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씹으면 껌 같아요.”

취를 맛보고 이 덩굴의 뿌리가 이런 맛을 낸다며 신기해하며, 나중에 직접 캐보고 싶다고 한다.

루페로 취의 덩굴을 관찰하게 했다. 털이 많고, 점이 있다고 한다. 줄기가 잘 휘어진다고 하며, 털이 따가울 것 같았는데, 부드럽다고 한다.

### 3) 취덩굴로 리스 만들기

적당한 굵기의 취덩굴을 골라 잎을 모두 제거한다. 취덩굴은 잘 휘어져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 어린 가지는 잘 부러지므로 어린 가지보다는 조금 굵은 가지를 잘라 쓰도록 한다. 약간 말린 다음에 사용하면 더 좋다. 취덩굴을 여러 번 돌려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꽃철사로 고정시킨다. 솔방울이나 도토리, 예쁜 나뭇가지 등 가을 소품을 모아 와서 본드로 붙여 완성한다.

**주의점** - 덩굴 식물 중에는 가시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덩굴을 잘 선택해야 한다.

하나 더!

### 취덩굴로 안경 만들기

적당한 굵기의 취덩굴 골라 잎사귀를 떼어내고, 원을 만들어 풀줄기로 엮어 안경을 만든다.



# 겨울 꽃

소나무 가지 사이로 박새가 부지런을 떠는 것이 유난스러워 보인다. 무엇 때문에 저리 분주한 걸까? 나무 아래를 가만히 살펴보니 커다란 잎 새 위에 박새가 먹다가 버린 솔 씨 날개가 반짝인다. 개중에는 씨앗이 함께 떨어져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고소한 것이 잣과 비슷한 솔의 향기가 확실하다. 박새 덕에 솔 씨도 먹어본다.

아이들과 함께 땅에 떨어져 있는 씨앗을 조심스레 찾고, 마른 풀의 이름을 알아보고, 그것으로 꽃을 만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집에서 가까운 산과 들, 아파트 주변의 화단에서 씨앗을 맺고 말라 있는 들풀이나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모아 이름도 알아보고, 건본을 보여주고 같은 것을 찾아보는 놀이를 하면서 씨앗을 잉태하는 자연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다.



대상 : 유치부, 초등학생

준비물 : 밝은 색 시트지(25\*25cm), 스카치테이프, 스케치북, 연필, 가위

계절 및 장소 : 가을과 겨울. 실내 야외 모두 가능.

## 작업순서

1. 여러 가지 종류의 씨앗이나 열매를 찾는다.
2. 샘플을 보여주고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는 놀이를 한다. (같은 나무나 같은 종류의 씨앗 구분)
3. 그 열매를 맺은 꽃을 상상하며 꽃을 그려본다.(스케치북에 스케치)
4. 스케치북에 시트지 끈끈한 부분이 위로 오게 붙인다.
5. 시트지 위에 주운 씨앗으로 꾸며 상상한 꽃을 만들어 준다.
6. 완성된 꽃을 감상하면서 꽃의 크기나 색을 상상해 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키 큰 나무의 씨앗은 어떻게 생겼을까?

“키 큰 나무의 씨앗을 보려면 어떻게 할까?”

소나무처럼 그 나무 아래에 가보면 박새가 먹다 남긴 씨앗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확인을 하기 위해 나무아래에 가보면 정말 나무 주변으로 열매가 달린 잔가지들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여러 종류의 나무 아래에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찾는다.

기다란 주머니에 씨앗을 여러 개 담고 있는 나무는?

꼬투리 안에 콩과 같이 여러 개의 씨앗을 담고 있는 식물이다. 서울에 있는 자그마한 산에 가장 많은 아카시아 나무가 대표적이다. 아파트 의자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등나무와 아카시아 잎과 비슷하지만 씨앗이 모여 달린 모양이 족제비 꼬리

를 닮은 족제비 꼬리도 같은 과의 식물이다. 씨앗을 담은 꼬투리가 유난히 큰 자귀나무도 기다란 주머니에 씨앗을 여러 개 담고 있다.

씨앗에 날개가 달려 있는 나무는?

날개를 달고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 모양은 여러 가지이다. 씨앗을 중심으로 빨처럼 양쪽으로 올라가 있는 나무(단풍나무, 중국단풍나무)와 씨앗을 가운데에 놓고 양 팔을 벌린 듯한 날개를 가진 나무(가죽나무), 귀통이에 씨앗이 있고 기다란 날개가 한쪽으로 달린 나무(튤립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등이 있다. 날개 달린 씨앗을 높이 들어 날리면 떨어지며 헬리콥터 날개처럼 빙글빙글 돈다.

솔방울같이 씨앗을 겹겹이 쌓고 있는 나무는?

멀리서 보면 동그란 모양의 열매가 달린 것 같이 보인다. 나무 아래에 떨어져 있는 열매를 보면 솔방울처럼 쪼갠 채로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씨앗을 담고 있다. 물오리나무와 오리나무가 대표적이다.

솜털을 달고 있는 나무는?

씨를 중심으로 빙 둘러 털을 달고 있는 나무는 무궁화나무이다. 덩굴식물로는 박주가리 씨앗이 있는데, 검정 씨의 한쪽 방향으로 비단실과 같은 털이 길게 달려 있다.

붉고, 푸르고, 검정의 색이 있는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는?

가을 숲에는 색색의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와 풀이 많다. 붉은 색의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는 팔배나무, 명감나무, 쨌레나무, 사철나무, 있고, 검정 색의 열매는 쥐똥나무, 산초나무가 있다. 보라색의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는 노린재나무, 작살나무가 있다. 푸른빛을 띠는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는 누리장나무, 머느리배꼽 덩굴이 있다.

## 주의점

1. 시트지가 얇아서 바람에 날아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의 손에 붙어 움직일 수도 있으므로 스케치북 중앙에 붙여 사용하면 좋다.
2. 시트지에 손자국이 많이 묻으면 얼룩이 생기니까 조심한다.

재료의 특성 - 시트지는 여러 가지 재료를 쉽게 붙일 수 있어서 간편하다.



# 겨울나무 숲 속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겨울바람에도 의연하게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 추위에 따뜻한 곳만을 찾았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나무를 친구로 만났던 아이들에게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디고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나 아닌 다른 생명을 생각해 보게 해보자.

나무가 둘러친 숲 속에서 주위의 나무를 보며 나무 따라하기를 해보자. 처음엔 팔을 나뭇가지로 생각하고 따라하게 하고, 나중엔 작은 나뭇가지를 양손에 들고 따라하게 하면 더 흥미로워진다. 또 여러 종류의 나무를 보면서 잎사귀가 떨어진 벌거벗은 나무가 가진 나뭇가지의 다른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준비물 : 나무색상지 4절지, 유성매직(12색), 가위

계절 및 장소 : 겨울, 야외

## 작업순서

1. 나무가 되어 본다.
2. 색상지에 맘에 드는 나무를 스케치한다.
3. 스케치한 나무를 오린다.
4. 오려낸 나무를 모아 놓고 숲을 표현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나무가 되어 보자

나뭇잎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의 나무는 추워 보인다. 나무가 되어보자.

나무가 된 아이들은 추운지 가까이 모여 있다. 한 곳에 무리지어 심어진 나무는 영양이 모자라 크게 자라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 준다는 말에 적당히 공간을 주며 떨어져 선다.

나무는 어떤 자세로 서 있을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뭇가지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지 자신이 나무가 되어 표현해 본다. 꼬인 나무라며 양팔을 꼬기도 하고, 휘어진 나무라며 팔을 춤추듯 출렁거린다. 아이들은 팔을 벌리고 서 있기가 힘이 들수록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나무가 가지를 뺏고 있어 나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나 아닌 다른 생명체를 생각하고, 염려해주는 마음을 가져봄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 2) 나무의 이름 알기

회색빛이 도는 껍질을 가진 밤나무는 수피에 세로로 골이 나 있고, 가지 여기저기에 벌레집이 붙어있다. 물오리나무는 가지 끝에 작은 솔방울과 같은 열매가 2~5개 모여 있다. 아카시아 나무는 수피(껍질)에 골이 심하고, 잔가지에 가시가 있다.

## 3) 숲 속을 표현해 보자

색상지에 맘에 드는 나무를 골라 스케치하고, 나무의 무늬도 그려준다. 가위로 나뭇가지를 따라 오려낸다. 한 장소를 지정해 오려낸 나무를 펼쳐놓고 숲을 만든다. 앞에 있는 나무 뒤에 있는 나무를 설명해 주면 자연스럽게 오려낸 나무를 겹쳐 놓는다.

###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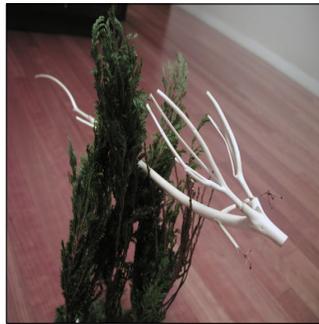
1. 겨울에는 몸을 많이 움직여서 하는 활동을 하고, 표현은 짧게 해야 추위를 견딜 수 있다.
2. 나무를 스케치 할 때 되도록이면 가지를 자세히 관찰하며 그리게 해야 나중에 그림을 오리면 근사한 나무를 볼 수 있다.

**재료의 특성** - 나무색 색상지를 각자가 고르게 하면 여러 가지 나무 색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좋고, 색칠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다.



# 나무가 내게 말을 해요

자연을 느끼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은 열린 마음일 때 가능하다. '나무가 내게 말을 해요'는 열린 마음으로 대상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 자연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겸허히 자연의 일부분이 되어보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작업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귀 기울일 줄 알기 때문이다.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준비물 :** 톱질이 잘 되는 무른 나무, 측백나무, 말린 호박씨, 감씨, 마른 강아지풀, 메타세콰이어 열매 등, 톱, 칼, 송곳, 목장갑, 이쑤시개, 글루건, 노끈, 구멍 뚫린 밀반침나무

**계절 및 장소 :** 가을의 실내

## 작업순서

1. 나무를 고요히 바라본다.
2. 나무가 어떤 형상을 보여주면 나무가 보여주는 형상에 따라서 만들기를 한다.
3. 나무토막끼리 연결할 때는 무른 나무이므로 이쑤시개의 양쪽을 뽀족하게 만들어서 양쪽 나무토막에 끼운다. 단단하게 하기 위해선 이쑤시개의 뽀족한 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끼운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쑤시개로 나무토막을 연결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글루건을 사용하여 붙인다.
4. 말린 호박씨, 감씨, 측백나무, 마른 강아지풀, 메타세콰이어 열매 등을 이용한다.
5. 측백나무는 밀반침의 구멍에 단단히 끼운다. 구멍이 작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칼로 측백나무의 밑 부분을 조금 깎아낸다. 밀반침나무의 구멍은 너무 크면 안 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만들 때 재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자.

나뭇가지가 하나 있다.

그 나뭇가지는 내게 말을 한다.

나를 ○○○로 만들어주세요.

나의 욕심이 앞을 가리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나뭇가지를 조용히 바라본다.

어느 순간 나뭇가지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보인다.

아이들 앞에 나무를 놓는다. 나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바라보도록 한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싶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동안 안내자는 아이들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자극한다. 나무는 여러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보일 것이다. 나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작업에 들어가도록 한다. 나무가 가진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작업한다.



## 주의점

1.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톱, 망치, 칼과 같은 연장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 단단한 나무는 작업연장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작업하기에는 힘들다. 무른 나무를 이용하면 아이들이 톱질을 하거나 작업하기가 쉬워진다.
2. 도구 사용 전에 안전교육을 한다. 톱질하는 방법, 칼로 나무를 깎는 방법을 시범 보인다.



# 눈썰매 타기

겨울에 눈이 오면 가장 반기는 이들이 강아지와 아이들이다. 이런 날 근사한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과 뒷산에 올라가 눈썰매 타기를 한다면 더 없이 즐거울 것 같다. 값비싼 스키장구가 없어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눈썰매를 타보자. 바람이 들어올 틈도 없이 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겨울바람에 움츠린 어깨를 펴고 산에 오르면 하나도 추운 줄 모를 것 같다. 신나는 겨울 놀이를 통해 추위를 이기고 함께 했던 놀이를 알록달록한 고무찰흙으로 표현해 보자.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준비물 : 돛자리, 모자, 장갑, 고무찰흙

계절 및 장소 : 겨울, 눈 쌓인 언덕

## 작업순서

1. 눈썰매를 탈 수 있는 장소와 자세,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눈썰매 타기를 한다.
2. 고무찰흙으로 눈썰매 타는 사람을 만들고 동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 눈 위에 만든 인형을 놓고 상황을 재현해 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눈썰매 타기 좋은 장소는 어떤 곳일까?

아이들과 함께 장갑, 모자, 겨울옷을 완벽히 갖추어 입고 돛자리를 들고 산으로 향한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은 산이 온통 하얗다. 눈이 쌓인 곳을 찾아다니며 눈썰매 탈 곳을 찾는다. 직접 눈썰매를 타면서 몸으로 방향, 자세 등을 스스로 터득하며 논다. 마음이 급한 아이들은 눈이 많다는 이유로 평지와 비슷한 곳에 돛자리를 깔고 발을 열심히 굴러보지만 다리만 아플 뿐 타는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등산로 중 경사가 있는 곳에서 타본다. 쉽사리 미끄러지면서 신나 한다. 계단이 있으면서 경사가 진 곳에서도 미끄러져 본다. 미끄러지다 텅 하고 튕겨지는 맛이 변화가 있어 좋다고 한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눈썰매장이 아닌 마을 뒷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경사진 곳과 경사가 급해 계단을 밟고 오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곳. 이런 곳이면 눈썰매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 2) 눈썰매타기 좋은 자세는?

타고 싶은 마음이 앞서 돛자리를 대충 깔고 미끄러져 내리면 돛자리와 몸이 분리된다. 출발하기 전 돛자리 뒷부분에 앉고 앞부분을 끌어올려 두 손으로 잡고 출발을 한다.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면 속력이 붙어 등과 머리가 뒤로 젖혀져 누는 자세가 된다. 누워야 머리도 부딪히지 않고 속력도 높일 수 있다.

## 3) 눈썰매 탈 때 엉덩이 보호에 적당한 재료는?

옛날에는 비료 포대라고 두꺼운 비닐봉투에 벼단을 넣어 폭신하게 만들어 탔다고 한다. 요즘은 벼단을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일인용 돛자리가 질겨서 눈썰매 타기에 좋다. 폭신한 느낌을 받으려면 라면이나 굴을 담아 파는 두꺼운 상자를 펼쳐 타면 제격이다.

## 4) 눈썰매 타는 고무찰흙 사람 만들기

아이들의 몸에서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추위를 어느 정도 물리쳤다 싶으면 이제는 따뜻하게 보관했던 고무찰흙을 꺼내어 눈썰매 타는 인형을 만들어보자. 눈썰매 탈 때 우리가 어떤 동작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고무찰흙 사람도 얼른 눈썰매를 타고 싶어질 것 같다.

## 5) 눈 위에서 썰매 타는 고무찰흙 사람들

눈 위에 고무찰흙 인형을 올려놓고 감상해 보자. 눈썰매 타는 동작을 멋지게 재현하는 찰흙인형을 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흐뭇해진다. 이 인형들은 눈 위에 올려놓으니 훨씬 더 근사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데려가야겠지?

## 주의점

1. 날씨가 추우므로 보온에 주의를 해야 하고, 활동은 오래하고 표현은 되도록 짧게 해야 한다.
2. 고무찰흙은 색이 다양하고 변형이 쉬운 대신 추운날씨에 빨리 굳는 것이 흠이다. 굳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사용해야 만들기에 편하다.



# 누워있는 나무

나무를 둘러본다. 항상 서 있는 나무들. 겨울 숲에서 뛰어놀고, 겨울을 버티고 선 나무를 보며 나무의 맘을 느껴본다.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나무들은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순간 나무를 눕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나무가 누워 있으면 아이들이 나무를 쳐다보지 않아도 되니 좋다. 올려다보는 나무가 아니라 내려다보는 나무, 우리가 가꾸어주어야 하는 나무가 된다. 누워 있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열매도 달아주고, 낙엽으로 잎도 달아주고, 춤지 말라고 장갑도 벗어준다. 새가 되어 새집을 만들어 날아들어도 좋을 성싶다.



대상 : 유치원, 초등학생

준비물 : 장갑, 여러 굵기의 나뭇가지와 나뭇잎

계절 및 장소 : 겨울, 야외

## 작업순서

1. 나무를 보며 나무의 형태를 관찰한다.
2. 관찰한 나무의 형태를 몸으로 흉내 내며 놀이를 한다.
3. 나뭇가지를 10개 정도 모아온다.
4. 평평한 땅에 모아온 나뭇가지를 늘어놓아 누운 나무를 표현한다.
5. 나무의 이름을 정하고 내가 열매가 되어 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1)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노래를 부르며 나무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멈춘 아이들을 둘러보고, 재미있는 포즈를 한 아이에게 질문을 한다.

“당신의 나무는 어떤 이름입니까?”

“구부러져 허리가 흰 나무입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당신의 나무는 어떤 이름입니까?”

“추워서 부들부들 떠는 나무입니다.”

2) 나무는 어떤 마음일까?

아이들과 나무되어 보기를 하며 몇 분씩 움직이지 않고 서 있게 한다. 처음엔 아무 말이 없던 아이들이 몇 번을 반복하고 나면 “추워요.”, “손끝이 시려요.” 한

다.

그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는 나무는 어떨까?”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불쌍해요.”, “내 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한다.

### 3) 나무를 눕혀주자

“서 있는 나무를 눕혀주는 건 어떨까?”

“나무를 어떻게 눕혀요? 나무를 눕히면 뿌리가 뽑히잖아요?”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굵기에 따라 몇 개씩 주워 나무가 누울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아간다. 나뭇가지들을 모자이크 하듯 짜 맞춰 가다보면 저절로 누운 나무가 된다. 나뭇가지 꼬트머리에 아이들 마음대로 장식을 하게 한다. 나뭇잎을 달아도 좋고, 솔방울을 붙여도 좋다. 춤지 말라고 자기 장갑을 벗어 매달아 주는 아이도 있고, 마른 풀을 모아 새집을 만들고 작은 돌을 넣어 알을 넣어 주는 아이도 있다. 누운 나무를 완성하고 나서, 내가 열매가 되어 나무 끝에 멋지게 달려본다.

### 4) 누워 있는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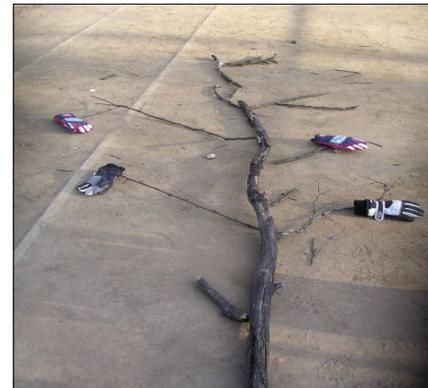
편하게 눕혀줘서 고맙다 하고, 가느다란 가지가 모여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 곱고 예쁘다.  
고은 담쟁이덩굴이 태어났다.

**주의점** - 나뭇가지를 주우러 갈 때 가지에 가시가 달린 나무를 줍지 않도록 조심한다. 가시 달린 나무에는 아카시아나무, 찔레나무, 산딸기나무가 있다.

**재료의 특성** - 숲에는 나뭇가지들이 널려있다. 굵기가 다양하고, 모양과 크기도 여러 가지라 가지고 놀기에 좋다.

하나 더!

우드락 판에 나뭇가지를 붙여 작은 나무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 눈 조각

눈이 펄펄 내린다.  
온 세상이 하얗다.  
우리들의 마음도 하얗다.  
하얀 마음은 눈으로 달려간다.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이면 마음은 절로 즐거워진다.  
아이들은 어김없이 눈을 뭉쳐 눈싸움을 하고  
눈을 굴리며 눈사람을 만든다.  
잘 뭉쳐지는 함박눈이 내렸다.  
눈을 뭉쳐 조각을 해보자.



대상 :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

준비물 : 눈을 깎을 수 있는 도구, 나뭇가지, 장갑

계절 및 장소 : 겨울의 야외

## 작업순서

1. 비탈진 장소에서 눈을 굴려 커다란 눈 뭉치를 만든다.
2. 눈 뭉치에 나뭇가지나 납작한 장난감을 이용하여 눈을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본다.
3. 완성된 모양에 흙, 나뭇잎,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장식을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1. 눈이 굴러간 자국



2. 비탈진 곳에서 굴렸더니 눈이 저절로 커졌다.



나뭇가지나 납작한 장난감은 눈을 조각하기에 좋다.



눈을 조각하고 있다



운동기구 위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



팬더 코는 흙으로 색깔을 냈다.



# 눈 가리고 불 만들기

지금은 시각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그러나 눈을 가리면 시각 외의 감각을 사용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상에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바쁜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진다.

우연히 아파트에서 나무와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심에서 그러한 불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불 주위에 모여 앉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피우며 타오르는 불의 모습을 보았다. 불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변화시킨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변화도록 만든다.

불은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처음으로 돌아가게도 한다. 불하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너무 어린 아이들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힘들어한다.)

**준비물 :** 눈가리개(손수건이나 휴지로 안경부위를 가린 물안경), 찰흙

## 작업순서

1. 만드는 것을 보지 않도록 거듭 강조하여 설명한다.
2. 눈을 가리면 흙을 한 덩이씩 나누어주고 충분히 만져보게 한 후 느낌을 물어본다.
3. 불과 관계된 질문으로 불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낸다. 예를 들면, “불은 가만히 있나요?” “형태는 한 가지인가요?” “불은 다른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4. 불 만들기로 들어간다. 안내자는 아이들이 불의 형태를 그대로 만드는 데 치중하지 않도록 똑같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아이들이 불의 외형이 아닌 불의 속성에 접근하도록 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보지 않고 만들기 위한 마음 다스리기

눈을 가리고 하는 작업은 아이들이 대상을 똑같이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눈을 가리기 전에 왜 눈을 가리고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살짝 살짝 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오늘은 눈을 가리고 불을 만들 거예요.”

“예-예? 어떻게요?”라며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본다.

“오늘은 손이 눈이 되는 거지. 자, 눈을 가립시다.”

아이들은 오늘은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하는 호기심에 흥미진진한 얼굴로 눈을 가린다.

“우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고 한 동안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아이도 있다. 이 때 안내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편안해질 거라고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 2) 손으로 찰흙 만지기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 흙을 한 덩이씩 나눠주고 충분히 만져보게 한다. 눈을 뜨고 만질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진다. 아이들에게 흙의 느낌이 어떤지 물어봄으로써 흙에 더욱 다가가도록 한다.

## 3) 불 만들기

“애들아 불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움직여요.”

“그래 불은 계속 움직이고 형태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자유롭고 다른 것을 변화시키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옛날에 보았던 불을 기억하고 그 불에게로 다시 가는 거예요.”

찰흙으로 불을 만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다가도 조금 지나자 “아, 꼭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눈을 안 뜨니까 편하다. 촉감으로 뭘 만드는지 보여요.”라고 한다.

“어! 어디가 앞인지 까먹었다.”

“시각장애인들도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것도 못 봐요?”

아이들 중 하나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었나보다.

만드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불의 외형이 아니라 불의 속성과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이 되어보세요.”

“선생님 너무 뜨거워요.”

“따뜻해. 내 작품 좀 이상해 배추 같다.”

“불이 반항하는 것 같아요.”

“말하지 말고 합시다. 말을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아이들은 작업이 진행될수록 눈을 감은 것에 익숙해지고, 흙에서 불을 깊이 느낀다. 답답해하던 아이들도 작업에 빠져들어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눈을 가림으로 해서 마음의 편안함과 함께 창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도 더 잘 듣게 된다.

## 4) 느낌 나누기

불 만드는 것이 다 끝난 후 눈가리개를 풀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가시 달린 장미 줄기 같다고 하기도 하고 괴물 같다고 하는 아이도 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라기도 한다.

눈을 가리고 작업하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을 나누어 본다.

“편안했어요. 여름에 숲에 누워 있는 느낌처럼.”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편안해지면서 불과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제 손이 타는 것 같았어요. 찰흙 끝이 불인 것 같았어요.”

“손에 눈이 있는 것 같았어요.”

## 주의점

1. <눈 가리고 불 만들기>는 아이들이 대상을 똑같이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절대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잘 만들기 위해 살짝 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2. 오랫동안 눈을 가려야 하므로 흘러내리는 손수건보다는 물안경에 휴지를 넣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된다고 말해준다.



# 피어오르는 연기

겨울이 오면 불 피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요즘 산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동네 뒷산인 매봉산 배드민턴장에 커다란 난로가 있어 불 피우기가 안전하다는 거다. 불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총만해 있다. 산을 오르며 불 피울 때 쓸 뿔감과 가랑잎, 솔잎을 양손 가득 들고 간다. ‘불장난하면 자다가 오줌 싸다’하시던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었던 것도 옛날 아이들도 불장난을 무척 즐겼기 때문일 것이다.

불 피우는 재미에만 신경쓰다보면 사라져가는 연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붉은 불씨가 변해 연기로 바뀐다. 가끔 불어대는 바람과 섞여 썰물처럼 쓸려버린다. 연기의 생성은 보이나 공기 중으로 사라져 가는 연기의 끝은 어딜까? 세상 만물은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연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준비물 : 어두운 색 색상지, 파스텔, 휴지, 물휴지(물수건), 픽서티브(정착액)

계절 및 장소 : 겨울, 야외

## 작업순서

1. 불을 지필 뿔감과 솔잎을 주워 모아 난로에 넣고 불을 피운다.
2. 긴 나뭇가지를 넣어 불을 붙인다.
3. 불붙은 나뭇가지를 꺼내 연기를 관찰한다.
4. 몸으로 연기를 따라 해본다.
5. 파스텔로 연기를 표현해 보고 픽서티브(정착액)를 뿌려 완성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불 피우기

마른 솔잎과 나뭇잎을 제일 먼저 넣고, 주워온 쪽정이 나무를 분질러 넣고, 장작을 한두 개 넣고 불을 피운다. 불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긴 나뭇가지를 난로 속에 심어 놓고 기다리면 끝에 불이 붙어 별장게 달아오른다. 얼른 꺼내 하늘로 치켜들고 바라보면 꼬불꼬불 하얀 연기가 춤을 추며 올라간다. 하얀 연기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간다.

### 2) 세상에서 보기 드문 ‘연기의 벨리댄스’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따라 춤을 추는 것 같다. “애들아 연기를 따라 해 볼까?” 아이들 모두 댄서가 되어 근사한 벨리댄스를 춘다.

### 3) 연기와 닳은꼴 찾기

불을 피울 때면 고구마나 떡을 가져가 구워먹는다. 한바탕 춤추고 나서 먹는 간

식은 더 맛이 있다. 난로 위에 올려놓았던 고구마를 벗겨 먹던 한 아이가 고구마에서도 모락모락 김이 춤을 춘다며 기뻐한다.

연기나 고구마의 김처럼 오래 보이지는 않지만 입에서 나오는 입김도 춤을 춘다며 하아~ 하아~ 한다.

#### 4) 색으로 연기를 표현해 보자

파스텔로 연기를 표현해 보자. 가늘고 연약한 연기는 파스텔의 뾰족한 쪽으로 그리고, 간혹 굵고 넓은 연기는 파스텔을 눕혀서도 그려본다. 뭉게뭉게 피어나는 연기, 흔들흔들 춤추는 연기, 무지개 색으로 보이는 무지개 연기. 연기 속에 있는 현란한 색들을 찾아내자.

고은 담쟁이덩굴이 태어났다.

**주의점** - 겨울은 건조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으면 특히 조심해야 하고, 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시킨다.

**재료의 특성** - 파스텔은 진하게 칠할 수도 있고, 진한 색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휴지로 지워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함께 만든 사람들

여성환경연대는

생태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의 소모임과 환경교육 교사들을 위해

미술과 생태교육을 접목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미술이라는 표현예술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면

아이들에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생태감수성과 표현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점점 경쟁과 학습에 지쳐가는 어린이들에게 쉽고 놀이,

창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국의 현장에서 건강한 지역을 일궈가시는

모든 생태안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획 : 임미란, 한길순, 김정희, 장이정수

글쓴이 : 한길순, 임미란

수정 및 편집 : 이보라, 김선미